

관객 눈높이 맞춘 작품들... 대중성 '성과'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결산 <상>

50개국 작가 1130여점 전시
32만 방문 일반 관람객 70%
수백개 노란공 '볼.룸' 가장 인기
지역상품 수출상담 '산업화' 눈길

지난 9월6일 개막한 2019광주비엔날레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55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던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57개관에서 진행된 본전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열린 5개의 특별전으로 구성됐다. 올 비엔날레 성과와 과제를 두 차레에 걸쳐 나눠 싣는다.

"예전 비엔날레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어 즐거웠어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공간과 작품들이 많아 좋았어요."

요즘 많은 전시장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올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에서는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이들이 특히 눈에 많이 띄었다. SNS 등을 통해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행사 막판에는 일반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하루 1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50개국 650여 디자이너의 작품 1130여점이 전시된 올 디자인비엔날레는 기존 비엔날레와 달리 '대중성'에 방점을 찍은 전시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순수 미술 중심의 '비엔날레'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 관객들 눈높이에 맞춘 작품들을 배치했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강화, 관람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했다. 관



'휴머니티'를 주제로 열린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55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31일 폐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람객들의 호응도 이어져 지난 행사 27만 명보다 늘어난 32만명(본전시 9만5000명)이 관람했다. 특히 친구, 가족, 연인 등 일반 관람객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점은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홍보 부족 등으로 초반 관람객이 적어 고전했지만 학생들 중간고사가 끝나 단체 관람객이 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한양대, 부경대, 부산 동서대, 대구 정화여고, 경남 삼천포여중, 여수 삼일중, 군산 중앙여고 등 전국에서 단체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은 헝가리 작가 키스미크로스의 '볼.룸 Ball. room'이었다. 수백개의 노란공이 채워진 '방'에 들어간 관람객들은 인증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빠르게 걷고 달리는 인간의 형상을 다채롭게 구현해낸 정인 작가의 작품도 인기였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현대 디자인의

근간' 바우하우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색션이나 미래 공동체 삶을 실현하는 전 세계 22개 도시 공간을 만나다로 구현한 '모두의 거실이 되는 도시(The City as a Public Living Room)' 등도 눈길을 끌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놓쳤던 다양한 제품과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 기업관들도 흥미로웠다. 애플 스티브잡스의 철학과 인간을 위한 기술을 만날 수 있는 색션, 스피커도 예술의 될 수 있음을 보여준 'NAPAL 3' 공간 등이 인기를 끌었다. 그밖에 산업관 '광주다움, 광주 사람들의 생각'전은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참여기업 제품 등 지역 기업들의 디자인 브랜드와 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성으로 인상적이었다.

특히 디자인비엔날레 때마다 화두로 대두된 '산업화' 부분의 성과가 눈에 띈다.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지역 제조기업 56개사와 18개국 47개사의 바이어가 참여, 총 152건의 상담을 통해 총 1005억원의 바이어 계약상당과 310억원(MOU 포함) 계약을 진행 하는 등 2017년 대비 308%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

산학 연계 프로그램도 관심을 모았다. 조선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생과 지역 뷰티 & 코스메틱 산업체 간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된 6개 기업 20여개 제품의 브랜딩 및 패키징디자인 결과를 전시했고 영국 골드스미스디자인대학 등 해외 디자인대학과 지역 대학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한 점도 의미 있었다. 그밖에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위한 '바우아 놀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자율주행 전시 등

자라나는 세대가 다양한 디자인의 세계에 관심을 보이도록 배려한 프로그램도 인상적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도서관·책방서 즐기는 인문학 산책

'클래식과 미술로...' 2일부터 운남어린이도서관·심가네 박씨

도서관과 책방에서 예술과 문화로 만나는 가을.

깊어가는가을, 도서관과 동네서점에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이 열린다. 광주 광산구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오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클래식과 미술로 만나는 인문학 산책'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했다.

2월과 9월에는 피아니스트이자 예술감독인 이창용 대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만난 클래식'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발레음악에서 탄생한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과 아라비안나이트를 음악극으로 만든 린스키 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를 소개한다.

15일과 22일에는 미술사 강사이자 아트스토리105 이창용 대표가 격렬한 터치와 자유분방한 선묘가 특징인 '황소' 화가 이중섭과 '지옥의 문', '생각하는 사람' 등으로 현대조각의 서막을 연 프랑수아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에 대해 강의한다.

29일과 12월 6일에는 조현영 아트앤소울 대표가 '혹헌행진곡', '템페스트' 등 세익스피어 작품에서 탄생한 음악과 '카르



조현영



이창용



최영미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책방 심가네박씨로 문의 가능하며 선착순 30명.

/박성천 기자 skypark@

찾아가는 프린지 '센티멘털 콘서트' 2일 수완호수공원

매주 토요일 다양한 거리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나는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번엔 광산구 수완호수공원을 찾아가는다.

찾아가는 프린지 '센티멘털 콘서트'가 2일 오후 5-8시 수완호수공원 호수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날은 홍주연이 7080세대를 위한 '궁감 콘서트'를 선보이며 막을 올리고, 루체트리아가 선보이는 피아노 연주회 '들으면 아!는 클래식'과 밴드 프롤로그의 통기타 콘서트도 잇따라 펼쳐진다. 또 광주무용협회 로얄발레단이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2막 '백조들의 춤'을 선보

이는자리도 마련되며, 광주여성솔리스트 앙상블도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클래식 성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주 무대뿐 아니라 호수공원 주변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심어솔라이터 봉훈은 '신창곡&작곡가'가 함께하는 버스킹을 진행하며, 통기타 앙상블 들꽃도 출연해 포크 음악으로 관객을 만난다. 신디매직의 마술과 풍선아트를 결합시킨 '매직발론', 마술사 조성욱의 '매직서커스' 등 퍼포먼스와 함께 행복드림팀의 음악극 '빨래'도 만나볼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박물관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 2일부터 3차례

가을 박물관에서 펼쳐지는 작은 음악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가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번 공연은 박물관 교육관 대강당에서 2일, 9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에는 '클래식기타 연주회-새로운 만남,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빛고을클래식기타협주단', 'G Melos', '여울림(해금)' 등 광주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

인 동호회 등 협연 공연으로 펼쳐진다. 특히 잔잔한 클래식 기타와 해금의 콜라보 무대와 아울러 '바람이 전하는 말', '사랑의 노래', '백만송이 장미', '사랑으로' 등이 연주된다.

9일에는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스위스 민속음악', 23일에는 '가을 댕, 기타에 물들다'가 진행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박물관 누리집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아이돌 세상 바꾼 팬덤문화·기부하는 팬들

광주일보 문예 매거진

연애 11월호

연애인을 좋아하는 '팬덤' 문화가 변하고 있다. 공연장이나 촬영장을 찾다니는 팬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추종자나 소비자에 불과했던 팬들이 이제는 전문가 수준이 되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애' 11월호에서는 특집 '열광에서 동반으로, 팬덤은 진화한다'를 통해 아이돌 세상을 바꾼 팬덤 문화와, '조공' 대신 '기부'를 하는 팬들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 본다.

'예향 초대석'은 세상에 끝없이 러브레터를 보내고 있는 '꽃꽃 시인' 나태주 시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 꽃꽃문학관을 찾았다. 시인은 문학관을 찾은 독자와 품금 연주에 맞춰 '꽃꽃' 노래를 함께 부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내년이면 등단 50년을 맞는 나 시인에게서 아프고 우울한 세상을 위로해주는 감정의 서비스맨인 '시인' 이야기를 들어본다.

깊어가는 가을, 가족과 함께 떠날 여행지 소식도 준비돼 있다. '짜목짜목, 남도한 바퀴'는 신안 섬 여행길로 안내한다. '천사의 섬' 신안은 지난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여행자들이 뱃길 아닌 자동차를 타고 자은도와 앞태도, 팔금도, 안좌도 등 신안 중부권 섬들을 구석구석 가볼 수 있게 됐다.

'1도(鳥) 1무지암'과 '순례길'은 신안의 색다른 문화와 때묻지 않은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게 한다.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연흥도로 떠나는 섬 여행도 설렌다. 연흥도는 버려진 섬



을 예술의 천국으로 만든 일본의 나오히마를 떠올리게 한다. 50가구 8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지만 2015년 전남도 '가고 싶은 섬'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변신한 곳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연재물 '클릭, 문화현장' 첫 소식은 여수 예술마루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근현대미술작전' 전시 현장이다.

김환기, 박수근, 백남준, 오윤 작가 등 한국 회화사에 한 획을 그은 세기의 명작 향연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다.

이외에 지난 10월 '치유도시(White Magic City)'를 주제로 열린 2019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여운을 전하고, 3·1 운동 100주년에 되돌아보는 부부독립운동가 최원순·현덕신의 삶과 발자취를 돌아본다.

구단 첫 외국인 감독으로 KIA 타이거즈 가족이 된 메이저리그 선수 출신 맷 윌리엄스 감독, 광주에서 생애 첫 '토크 콘서트'를 가진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 광주 첫 영화비평자인 'SCENE 1980' 창간 작업을 주도한 현재섭 편집장과 김지연(사)광주영상영화인연대 이사장과의 인터뷰도 기대된다. /이보람 기자 boram@



남성 장로 114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광주장로찬양단 정기연주회, 4일 광주문예회관

음악을 통해 봉사와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장로찬양단(단장 정소지 장로·광주동명교회·사진)이 오는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제26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는 광주지역 남성 장로 114명 단원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등

10곡을 세련된 남성 합창으로 선보인다. 특별 순서로 '시편 23편' 등 2곡을 가곡 찬양으로 선사하고, 여성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더 싱어즈'는 다채롭고 화려한 선율을 펼쳐낼 예정이다.

이준이 지휘를, 김은희와 이주영이 반주를 맡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 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